

<아시아 공동체론 에세이>- 아시아가 하나 되기 위한 첫걸음

기계공학과 김영호

처음 친구의 추천으로 '아시아 공동체론'이라는 강의를 접하게 되었을 때는 잘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보다 두려움과 막막한 마음이 컸습니다. 공대생으로써 수학과 과학만 공부하다가 우리나라도 잘 모르는 제가 아시아에 관한 강의를 듣는다는 것에 자신 있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번 학기에 새롭게 개설되는 과목이라 다른 문과 학생들 역시도 처음 접하는 것이기에 동등한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저 개인적으로 정치와 사회 분야에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뉴스를 챙겨보기 때문에 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강의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또한 일본의 재단 이사장님께서 성적 우수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지급해주시고 매 강의마다 저명하신 강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과연 어떤 강의이기에 이렇게 많은 분들의 노력과 자금이 투자되는지도 궁금하여 아시아 공동체론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태로 수강을 시작하였습니다.

아시아 공동체론은 제가 대학에 입학하고 들었던 강의 중에 가장 수업 분위기가 좋았던 강의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매 수업마다 강사님께서 본인께서 전달하고 싶으신 내용을 학생들에게 잘 전달해주시려 많은 준비를 해주셨고 강의 때마다 최선을 다해주셨습니다. 아시아 공동체라는 공통의 큰 주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강의 내용은 정치, 경제, 역사와 같은 내용부터 영화, 여행과 같은 이야기까지 매우 다양했습니다. 학생들 역시 강의에 대한 집중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물론 그 다음 주에 레포트를 작성해야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 이유 외에도 강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관심을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강의를 끝난 후에 질의응답 시간 역시 정해졌던 시간을 넘어가는 일도 다수였을 만큼 질문 역시 많았습니다. 가장 크게 기억나는 학생들의 참여 모습은 10월 28일에 있었던 국제학술회의였습니다. 그 날은 아시아 공동체론 수업은 없었고 국제학술회의의 참석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조운제 교수님을 비롯하여 한국과 일본에서 저명하신 관료, 학자 분들께서 참석하시어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와 나아가서 아시아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방향에 대해 토론하시는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저 역시도 1부부터 3부까지 모두 참석하여 들었고, 학계의 각 분야 말씀들부터 한국과 일본의 관료 분들께서 현재 각국의 정책 방향도 말씀해주셔서 아시아공동체론을 듣고 있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시아 공동체론 강의 중에 들었던 이야기도 있었고 레포트를 쓰며 혼자 생각해보았던 내용도 있었지만,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질의응답시간에 학생들은 학술회의에 참가하신 저명하신 분들에게 조금도 주눅 들지 않고 본인이 묻고 싶은 내용을 당당하게 질문하고 학회 참석자분들께서도 성심껏 답변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토론과 비슷하다고 느껴질 만큼 학생들의 열의는 대단했습니다.

강의를 통해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 내용도 많습니다. 그동안에 거의 전혀 모르고 있었던 한일 양국 경제협력의 과거, 현재를 알게 되었고 앞으로 나아갈 미래에 대하여서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공업화에는 일본의 경제적 원조가 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은 공대생인 저에게도 꼭 알고 있었어야 하는 사실임에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중고등학생이나 대학교 신입생은 물론, 20대의 젊은 사람들은 거의 모르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거와 달리 일본과 협력이 사실상 끊긴 상태입니다. 과거사에서 비롯된 정치적인 이유와 한일 양국의 산업 구조가 비슷하여 이제는 서로를 경쟁상대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여 한국과 일본이 경제 수준이 비슷해지고 경제 제도도 비슷하기에 서로가 협력한다면 양국이 동반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

다. 환율만 하더라도 약간의 변동에 서로의 기업이 수출에 영향을 많이 받고 서로에게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수업시간에 유럽연합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유럽연합이라는 국가 공동체의 선진 사례를 보고 배울 점은 배우고 수정해야할 부분은 수정하고 준비하여 우리도 아시아 공동체를 준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한일 양국 정부가 대화를 통해서 다시 협력을 강화하여 동아시아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중심역할을 해야 합니다.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평소에 잘 접하지 못했던 중앙아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강의를 통해 중앙아시아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야할 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시아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의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중앙아시아는 제 2의 중동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 세계적인 자원의 보고이고 아직 개발되고 있지 않은 석유, 천연가스과 광물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의 자원 활용에 있어서 세계 강대국들은 이미 자원외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 더욱 걱정이 되었고 한 번 더 아시아 공동체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시아내의 국가들끼리 경쟁하는 구도가 아닌 서로 협력하고 계획하여 자원외교를 한다면 얼마나 효율적이고 강력한 협력기구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아시아 공동체에 의해 자원외교가 이루어진다면 그 때의 자원외교는 동아시아의 강대국들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의 국가들 또한 참여하여 중앙아시아의 국민들 또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아시아 공동체론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경제적인 협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협력기구의 모습에서 안보 분야의 협력까지 발전하는 형태의 모습이 가장 현실적인 아시아공동체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 중국과 일본은 안보와 정치적인 협력은 거의 끊긴 상황이지만 경제적인 협력은 서로의 필요에 의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많이 부상한 상태이지만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할 정도로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게도 곧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고 중국도 현재 많이 경제를 성장시켰지만 경제침체가 오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때에 일본이 아베노믹스를 시도하며 경제를 다시 성장시키려고 할 때, 이를 경쟁상대로 보지 않고 과거에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경제 원조를 했던 것과 같이 협력적인 태도를 가지고 함께 풀어나간다면 경제에서 출발한 국가 간의 협력 관계는 정치와 과거사에 대한 대화와 협력관계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시아 공동체론 강의를 듣고 난 후인 지금 이 강의가 왜 개설 되었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지 생각해보았습니다. 1900년대 초반 한중일 관계가 안 좋아진 시기부터 다시 공부하면서 1970년대에 우리나라의 공업화에 대한 의지가 강할 때 일본이 한국에게 경제 원조를 해주었던 사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금융위기 극복과 현재 한국과 일본이 경제가 침체된 사이 경제적으로 급부상한 중국까지 되짚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때의 한중일 문화, 유교적인 영향들도 생각해보았습니다. 동아시아의 역사가 우리에게 동아시아는 국가들 사이에 협력관계에 있을 때 발전하였고 서로 관계가 안 좋을 때 침체의 시기를 겪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사와 감정적인 이유들로 인해 협력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과거사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해결해야할 부분이지만, 개선의지, 대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현재의 상황은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강의를 통해 아시아 공동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를 위해서는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협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